

입학전형별 대학생활 인식차이 및 학업역량 수준분석

심태은
동국대학교 교육혁신센터

A Study on the Different Perception of University life and the Level of Academic Competency by the Entrance Type

Tae Eun Shim
Center for Educational Innovation, Dongg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입학전형별 입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학업역량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2017학번 동국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대학생활에 대한 중요도와 집중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입학전형별로 학업역량 중 GPA를 중심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수시전형 학생들이 정시전형 학생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중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생활과 밀접한 장학금에 대한 것은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에 대한 중요도와 집중도의 차이에서는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높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인 학점 및 팀플 과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입학전형 GPA도 수시전형 학생들이 정시전형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시전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houghts of college life of students enrolled in each admission process to determine the level of academic competency. The satisfaction level of university life was analyzed among university students who studied at Dongguk University in 2012-2017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concentration of university life. Finally, the differences in scholastic ability around GPA were analyzed and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with pre-school grade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college life than those with regular admissions. Although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s high during college life, it has been shown to be unsatisfactory regarding scholarship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life. In terms of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concentration of college life, the greatest concern was with finding employment after graduation, but in reality the students could not focus on the current situation, but focused onl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grades and teamwork. The final admission GPA also showed that pre-school students were higher than regular students, and were able to adjust quickly to their school life and affect their satisfaction. Overall, education policies and program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overall thoughts of university life and supplement them.

Keywords : University Life, Academic Capabilities, Entrance Type, Concentration level, GPA

*Corresponding Author : Tae Eun Shim(Dongguk Univ.)
email: shim2593@dongguk.edu

Received April 22, 2019

Accepted July 5, 2019

Revised June 3,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9학년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지원자가 제출한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하여 지원자의 잠재능력과 발전가능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서, 점수화로 학생들을 평가하였던 전통적인 입시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이후 2015학년도부터는 '입학사정관제' 대신 '학생부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원자의 학교생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나 정성평가, 지원자의 발전가능성을 기뻐한다는 기본 취지는 유효하다.

이러한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대학은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많은 전형들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입학전형별로 고교교육 내실화를 가지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입학전형별 학업역량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때 학업역량 및 학업성취도는 GPA(총평점평균)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수시 전형 입학생들이 정시전형 학생들에 비해 학업역량 및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입학전형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는 있지 않았다[1],[2],[3].

그 외에 입학 후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학교생활 적응을 분석하는 연구가 [4],[5],[6],[7],[8], [9], [10] 주를 이루었는데 대학이미지와 전공만족도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도 수시전형 학생들이 일반전형 학생들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정량적인 수치만으로 입학전형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찾고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를 시행하기 전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입학전형 학생들에 대한 특징들을 질문한 결과 학생부전형 입학생의 특징은 '적극적인', '성실함', '자기주도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밖에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공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논술전형 입학생들의 특징도 '사고력이 우수함',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며 논리적임', '토론 실력이 있으며 비판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 '발표력이 있으며, 이해력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이야기 하였으며, 정시(수능) 전형 학생들의 특징들은 '학습능력은 뛰어나지만 웬지 아쉬운 대학선택', '근성이 있으나 아쉬운 전공 선택', '한두 문제로 대학

이 달라짐'이라는 특징들을 이야기 하였다.

이렇듯 입학전형별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별로 대학생활 만족도는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전형별로 대학생활 중요도 및 집중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GPA 현황도 분석하여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분석하겠다.

2. 연구 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역량개발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 방법을 정교화하고자 하였다.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1대 1 면담을 실시하였다. 기간은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 D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27명이 응답하였다. 문항은 학생입학정보, 대학생활 인식, 입학전형 인식으로 나뉘어 구성하였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학적·생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2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입학생 17,371명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 재학생들의 적응 정도를 추적·조사하고자 하였다. 2018년 7월 한 달 동안 정보처, 학생서비스팀, 도서관, 역량개발센터 등 유관부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평균 평점(GPA)의 경우 입학년도가 같아 할지라도 이수학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기준 시점에서 학년 역시 다르다. 따라서 개인별로 이수학기에 따라 학년별로 GPA를 재계산하였다. 최종 누계 GPA란 학생 개인마다 기준 시점에서 취득한 최종 평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수집·가공된 정보와 입학 및 입시 정보를 연결하여 DB를 구축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연구진이 모여 세부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그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때는 Excel 및 SPSS 21.0을 활용하여 각 항목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t 검증, 교차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사후분석 등).

그리고 결과에 따라 전형유형별로 총30명을 1:1 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Table 1. Recategorization of High school Type for Analyzing Student Data

High school type		High school type categorization
General high school		General high school
Special-purpose high school	Science High School	Special-purpose high school(Science/ Foreign Language/ International)
	Gifted schoo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nternational High School	
	Art High school	Special-purpose high school(art/P.E.)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Specialized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Specialized High School(job/Meister)
	Specialized High School (job)	Specialized High School (Alternatives)
Autonomous high school	National unit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Metropolitan city unit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Various Schools, High Tech School, Broadcasting Communication High School, GED, Foreign, Korean overseas schools, etc.		etc.

Table 2. Target by Admission Year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N	2,919	2,878	2,877	2,878	2,901	2,918	17,371

Table 3. College life Recognition Survey Respondents

Division	N	Average
Comprehensive school records	164	22.6
School record book curriculum	81	11.1
Essay	140	19.3
SAT	272	37.4
Actual skill	39	5.4
Subject(100)	31	4.3
Total	727	100

3. 연구결과

3.1 입학전형별 대학생활 만족도 분석결과

대학생활 중 GPA에 미치는 영향 원인을 찾기 위하여 재학생 723명에게 설문을 돌려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과 같다. D대학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43점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웃돌았다.

그 중 입학전형별에서는 학생부교과(3.77) > 실기(3.68) > 논술(3.59) > 학생부종합(3.58) > 교과(100)(3.29) > 수능(3.14) 순이었으며,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F=9.840, p=.000으로 수능 및 실기-학생부교과 사이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대학 선행연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들이 대학생 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의 학생들도 평균 3.58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수능은 3.14점이고 사후분석 결과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수능으로 입학한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다른 전형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교유형에서는 자율형 공립고(3.90) > 특목고(예술/체육)(3.50) = 검정고시(3.50) > 일반고(비평준화)(3.47) > 일반고(평준화)(3.43) > 대안학교(교육부 인가)(3.33) > 자율형 사립고(3.30) > 기타(3.20) > 특성화고(직업/마이스터)(3.26) > 특목고(과학/외국어/국제)(3.16) 순이었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F=14.855, p=.000으로 특목고(과학/외국어/국제)와 자율형 공립고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llege Life Satisfaction by Entrance Type

Division	N	Avg	Standard Deviation	F	P
Comprehensive school records	164	3.58	0.865	9.840	.000**
School record book curriculum	81	3.77	0.926		
Essay	140	3.59	0.872		
SAT	269	3.14	0.982		
Actual skill	38	3.68	0.989		
Subject(100)	31	3.29	0.824		
Total	723	3.43	0.951		
Scheffe SAT < Actual skill, School record book curriculum					
General high school(equalization)	435	3.43	0.951	14.855	.000**
General high school(unequalization)	137	3.47	0.892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31	3.90	0.870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50	3.30	1.035		
Special-purpose high school(Science/Foreign Language/International)	37	3.16	0.866		
Special-purpose high school(Art/P.E.)	2	3.50	2.121		
Specialized High School(job/Meister)	19	3.26	1.098		
Alternative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permission)	3	3.33	1.528		
GED	4	3.50	1.000		
etc.	5	3.20	1.095		
Total	723	3.43	0.951		
Scheffe	Special-purpose high school(Science/Foreign Language/International) <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생활만족 수준을 총9가지의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경향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으며, 전체 723명 중 553명이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① 전공 및 교육과정(45.6%) > ③ 우리대학 이미지(43.6%) > ④ 학사제도(29.7%) > ② 교수진(25.7%) > ⑦ 동문(19.7%) > ⑨ 졸업 후 취업 및 진로 현황(16.1%) > ⑧ 학내 교육시설(13.7%) > ⑤ 취업지원(8.1%) > ⑥ 장학제도(7.8%)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D대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대학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형유형에서는 '② 교수진'과 '⑥ 장학제도'에 대한 만족이, 학생부교과(4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실기전형에서는 '⑦ 동문(6.5%)', '⑨ 졸업 후 취업 및 진로현황(12.9%)'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전형에 비해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고교 유형에서 특목고(과학/외국어/국제)는 '① 전공 및 교육과정(58.3%)'이 다른 고교유형에 비해 높았던 반면, '③ 우리대학 이미지(20.8%)'은 낮았다.

반대로 D대학의 대학생활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⑥ 장학제도(68.0%) > ① 전공 및 교육과정(40.6%) > ③ 우리대학 이미지(32.3%) > ② 교수진(31.5%) > ⑤ 취업지원(16.9%) > ④ 학사제도(15.5%) > ⑦ 동문(11.3%)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장학제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위 결과를 중심으로 입학전형별로 대학생활 만족도를 1:1로 질문한 결과 학생부교과 및 종합 학생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한 전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만족스럽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시)수능

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내가 “준비하던 학과에서는 1차로 떨어졌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내 점수에 맞는 전공을 찾아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불만족에 대한 이유도 물어봤다. 그 결과 장학제도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컸는데, (정시)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도 비싼데 비하여 장학제도가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보니 자신의 진로 및 의사결정에 힘든 상황을 이야기 하였다. 그로 인하여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같다”며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이야기 하였다.

Table 5. A Reason for Satisfaction / Unsatisfaction

Reasons why respondents are satisfied with D University	Frequency	%
① Major and Curriculum	252	45.6
② Faculty	142	25.7
③ Our university image	241	43.6
④ baccalaureate programs	164	29.7
⑤ Employment support	45	8.1
⑥ Scholarship system	43	7.8
⑦ Alumnus(alumna)	109	19.7
⑧ In-school educational facilities	76	13.7
⑨ Employment and Career Status after Graduation	89	16.1
Total	1161	209.9
Total number of respondents	553	100.0
Reasons why respondents are not satisfied with D University	Frequency	%
① Major and Curriculum	147	40.6
② Faculty	114	31.5
③ Our university image	117	32.3
④ baccalaureate programs	56	15.5
⑤ Employment support	61	16.9
⑥ Scholarship system	246	68.0
⑦ Alumnus(alumna)	41	11.3
⑧ In-school educational facilities	126	34.8
⑨ Employment and Career Status after Graduation	79	21.8
Total	987	272.7
Total number of respondents	362	100

3.2 대학생활 중요도 및 실제 집중도 차이분석

대학생활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인 대학생활 활동을 9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중요도와 함께 실제 집중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학생활 중요도와 실제 집중도를 평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우선 중요도별로 살펴보면 '4) 졸업 후 취업 준비'가 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 외국어 능력 향상(4.21)',

‘1) 대학 학업 이수 정도(평균, GPA)(4.11)’, ‘2) 인적 네트워크 형성(4.03)’, ‘3) 취미활동(3.80)’, ‘5) 졸업 후 진학(대학원, 유학 등 준비)(3.73)’, ‘9) 아르바이트 경험(3.32)’, ‘8) 동아리 참여(2.78)’, ‘7) 학과 행사 참여(2.62)’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취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시에 주요 요건이 될 수 있는 외국어, 학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아리 참여와 학과 행사 참여의 경우 3.00점을 밑돌아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집중도별로는 ‘1) 대학 학업 이수 정도(평균, GPA)’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 외국어 능력 향상(3.29)’, ‘4) 졸업 후 취업 준비(3.25)’, ‘3) 취미활동(3.24)’, ‘2) 인적 네트워크 형성(3.2)’, ‘9) 아르바이트 경험(3.17)’, ‘5) 졸업 후 진학(대학원, 유학 등 준비)(2.48)’, ‘7) 학과 행사 참여(2.43)’, ‘8) 동아리 참여(2.34)’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실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적과 취업 준비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학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활동, 즉 동아리와 학과 행사에 대해서는 집중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실제 집중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중요도보다 실제 집중도가 낮았다. 특히 ‘4) 졸업 후 취업준비(-1.25)’와 ‘5) 졸업 후 진학(대학원, 유학 등 준비(-1.25))’이 가장 큰 간극을 보였다. 특히 취업 준비의 경우 중요도가 4.5점으로 매우 높았으나 실제 집중도는 ‘보통 수준(3.25)’인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이 취업 준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6) 외국어 능력 향상’과 ‘2)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경우 차이가 각각 -0.92점과 -0.83점으로 타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Table. 6.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Concentration of University Life

Division	Importance(A)			Actual concentration(B)			Gap (B-A)
	Freq uency	Avg	Stand ard Devi ation	Freq uency	Avg	Stand ard Devi ation	
1) University degree completion(Grade, GPA)	726	4.11	.759	726	3.83	.900	-0.28

2) Human network formation	725	4.03	.843	722	3.20	1.064	-0.83
3) Hobby Activities	726	3.80	.883	726	3.24	1.024	-0.56
4) Prepare for employment after graduation	727	4.50	.668	726	3.25	1.086	-1.25
5) Going to school after graduation (Graduate school, Study abroad and other preparations)	726	3.73	.893	726	2.48	1.187	-1.25
6) Foreign language ability improvement	724	4.21	.868	726	3.29	1.020	-0.92
7) Participation in academic events	725	2.62	1.079	726	2.43	1.296	-0.19
8) Participation in club	727	2.78	1.000	725	2.34	1.357	-0.44
9) Part-time experience	723	3.32	1.019	726	3.17	1.281	-0.15

3.3 입학전형별 학업역량 분석

학업역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재학생들의 GPA(Grade Point Average)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형유형별 및 고교유형별로 GPA를 분석하여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GPA 분석 시 중도탈락(제적)한 학생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마다 휴학 및 중도탈락, 타 대학 교환 등 입학년도와 이수학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수학기에 따라 학년을 구분하였다. 1~2학기 이수한 경우 1학년, 3~4학기를 이수한 경우는 2학년, 5~6학기를 이수한 경우는 3학년, 7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는 4학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학생들마다의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누적학기의 최종 GPA를 구하였다.

그 결과 전형유형별 GPA 분석한 결과 <Table 7> 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100)(3.56) > 학생부교과(3.37) > 학생부종합(3.35) > 실기(3.28) > 논술(3.26) > 수능(3.13) 순으로 나타났다. F=53.628, p=.000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부교과(100), 학생부교과, 논술, 수능 간에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체 대상자의 누계 GPA는 학생부교과(100)이 다른 전

형에 비해 우수하였고 그에 반해 실기 전형은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전형유형에 따라 GPA를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입학생의 최종 GPA는 특목고(과학/외국어/국제)(3.45) > 기타(3.35) > 자율형 공립고(3.33) > 일반고(3.29) > 자율형 사립고(3.22) = 특성화고(직업)/마이스터(3.22) > 특목고(예술/체육)(3.18) 순이었다. 고교유형에 따라 GPA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14.855$, $p=.000$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목고(과학/외국어/국제), 자율형 공립고, 특목고(예술/체육)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GPA에서는 특목고(과학/외국어/국제)이 다른 고교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특목고(예술/체육)이 다른 고교유형에 비해 GPA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Results of GPA by Admission Type

Classification by type	N	Avg	Standard Deviation	F	P
Comprehensive school records	1,622	3.35	0.58	53.268	.000**
School record book curriculum	1,203	3.37	0.58		
Buddhist world (Monk)	129	3.57	0.44		
Buddhist world (Normal)	432	3.28	0.58		
Comprehensive school records (All around opportunities)	506	3.30	0.56		
School record book curriculum (All around opportunities)	352	3.31	0.48		
Specialized High School Graduates (incumbent)	208	3.32	0.60		
Specialized High School (Early decision)	50	3.32	0.52		
Essay	2,570	3.26	0.56		
School record book curriculum(100)	668	3.56	0.49		
Actual skill	1,140	3.11	0.66		
SAT	6,951	3.28	0.65		
SAT(etc.)	181	3.13	0.60		
Specialized High School(regular admissions)	126	3.11	0.64		
Total	16,138	3.29	0.62		
Scheffe	School record book curriculum(100) > School record book curriculum > Essay > actual skill				

General high school	12,210	3.29	0.61	14.855	.000**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1,223	3.22	0.64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786	3.33	0.59		
Special-purpose high school(Science/Foreign Language/International)	782	3.45	0.61		
Special-purpose high school (Art/P.E.)	252	3.18	0.56		
Specialized High School(job/Meister)	457	3.22	0.61		
Specialized High School(Alternatives)	16	3.32	0.70		
etc.	412	3.35	0.64		
Total	16,138	3.29	0.62		
Scheffe	Special-purpose high school(Science/Foreign Language/International) >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 Special-purpose high school(Art/P.E.)				

4. 결론 및 제언

대학 입학전형제도의 본질은 대학의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학에서부터 졸업때까지 전주기 관리로 인하여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만족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특히 입학전형의 다양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특성도 제각기 이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똑같은 교육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고, 그에 따른 중요도 및 실천도를 분석하여 학생들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요약하면 2012-2017학년도 재학생 17,317명을 대상으로 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764명)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전형별 입학생의 특징을 다각도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형유형별 D대학 학생들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형유형별 입학의 만족도는 학생부교과 > 실기전형 > 논술 > 학생부종합 > 교과 > (정시)수능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생각 중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는 “자신의 원하는 전공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

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정시) 수능전형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옮길 계획 : 반수"이 있다는 응답자가 다수가 있었다.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는 수시로 입학지원을 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다시 한번 도전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결과에서 학생부 교과 및 종합전형 학생들의 경우 다른 전형유형에 비해 전과 및 제적 비율도 낮게 나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생들의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활 중요도 및 집중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수요에 맞게 졸업 후 취업준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 대학을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활에서도 취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우선시 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학 학업 이수정도 (GPA)를 가장 높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로 인하여 성적을 가장 우선시 하였고, 졸업을 위한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요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은 취업을 목표로 교육이 실현되는 곳은 아니다. 대학생활을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넓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도 및 실제 집중도를 설문한 결과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03점으로, 실제 집중도는 3.20점으로 차이가 -0.83점이었다. 즉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집중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다. 실제 집중 정도는 학생부종합 > 학생부교과 > 논술 > 수능으로 전형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수능전형 입학생의 집중 정도가 타 전형에 비해 낮았다.

한편 「학과 행사 참여」에서는 중요도가 2.62점, 실제 집중도는 2.34점으로 차이가 -0.19점이었다. 전형유형별로, 중요도는 학생부종합 = 학생부교과 > 논술 > 수능 순이었으며, 실제 집중도는 학생부종합 > 학생부교과 > 논술 > 수능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학과 행사 참여」에 부정적이었지만 전형유형별로 보았을 때 수능전형 입학생의 정도가 타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학생활 중요도 및 집중도에서도 수능전형 학생들이 다른 전형들에 비해 대학생활 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입학전형별로 GPA는 수시전형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고, 논술전형, 수능전형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른 선행논문들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재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부 전형인 수시전형 학생들의 특징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을 보였다. 즉 학생부전형 : 수시전형 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자기주도적이며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반면, '기초 학업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학전형별로 학습 및 자아 발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분석하였는데, 도서관 대출 건수, 도서관 이용률, 비교과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전형 학생들이 (정시) 수능전형 학생들에 비해 좀 더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이라 함은 대학생이 직면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상태, 학업과 대인관계, 대학의 환경 등이 같이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학생들의 학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입학전형별로 학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입학전형이라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들마다 다른 교육과정으로 또 다른 역량을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역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요인들이 대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시행된다면 교육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 H. Kim, B. S. Le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Student Outcomes by College Admission Type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1, No 2, pp209-230. 2010. UCI : G704-001618.2010.41.2.005
- [2] K. H. Lee., Y. J. Kwan. An Empirical Study on University Life of Students Admitted by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27, No 2, pp23-47. 2014. UCI : G704-001272.2014.27.2.001
- [3] M. H. Jo, H. W. Lee. A Study on Learning Competencies of University Freshmen based on University Admission Methods. A Study on career education. Vol 27, No 3, pp163-179. 2014. UCI : G704-001285.2014.27.3.003
- [4] Konkuk, Daejin, Dongguk, Seoul City, Chonbuk, Hallym University.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Development of the Comprehensive Operation of the Students' Department. Konkuk University. 2016.
- [5] G. S. Kang. Narrative Inquiry on Freshman's Experience of Adjustment into University Through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A Study on Educational

Thought, Vol 26. No 1, pp1-35,2012.

DOI : <http://doi.org/10.17283/ikedi.2012.26.1.1>

- [6] B. N. Kim. E. K. Kim, The Difference of Student Adaptation Level to University Life Depending upon Admission Methods, Vol 21, No3, pp5-25, 2015.
- [7] K. R. Roh · S. J. Yoon. The study on the process of the adaptation to the university Life of freshmen admitted by the admissions officer -Focused on the freshmen who experienced at a women's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 Vol 33, No 1, pp91-118. 2012.
DOI : <http://doi.org/10.24159/joec.2015.21.3.5>
- [8] H. Y. Lee. T. J. Cho.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 on College Adjustment. Counseling Studies. Vol 5, No 1. pp79-94. 2004. UCI : G704-001281.2004.5.1.005
- [9] M Jeong, A. Y. No.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Lifestyle and Their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2. pp375-387. 2002. UCI : G704-000523.2002.14.2.004
- [10] S. J. Choi, B. S. Kim. Do students selected by specially trained admission officers show better performance in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11, pp4220-4227. 2010. UCI : G704-001653.2010.11.11.071
- [11] T. E. Shim. A student's academic competency analysis class, Dongguk university. 2018.

심 태 은(TaeEun Shim)

[정회원]



- 2003년 8월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학 석사)
- 2007년 8월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07년 6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수법 연구교수

<관심분야>

리더십, 교수학습, 교육행정, 입학전형, 핵심역량